제목 뭐로하징 이게 교체가 되는건가?! 진짜로 아니 되는거야 마는거야 ㅆ발

밤의 그림책(책 제목을 적어주세요)

발행 2020-06-20ㅇㅁㄴㅇㅁㄴdasddasdas

지은이 이용승~ㅇㄴㅁㅇㅁㄴ!dsadsadsadas(저자명, 필명을 적어주세요)

발행인 심영길

발행처 북팟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6호

전화 080-865-3700

전자우편 webmaster@bookpod.co.kr

홈페이지 www.bookpod.co.kr

ISBN 979-11-00-0000-0

ⓒ 저자명, 2019

\*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북팟은 (주)아이커머의 출판전문브랜드입니다.

밤의 그림책

워킹맘이 쓴 그림책 에세이

저자명 지음



**차례**

프롤로그 5

1부\_ 나를 위한 그림책

어둠이 오면 잘 보이는 것들\_<집으로 가는 길> 6

엄마가 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_<우리 엄마> 12

별 거 아닌 일상의 힘\_<상추씨> 17

사랑의 힘을 보여 줘\_<고마워 사랑해> 19

워킹맘,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_<균형> 20

마일즈처럼 살고파\_<마일즈의 씽씽 자동차> 24

2부\_ 우리를 위한 그림책

작은 투쟁\_<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30

바보처럼 살자고요\_<비에도 지지 않고> 33

함께 더위를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_<수박수영장> 37

3부\_ 우리를 위한 그림책

작은 투쟁\_<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30

바보처럼 살자고요\_<비에도 지지 않고> 33

함께 더위를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_<수박수영장> 37

에필로그 55

나를 위한 그림책

1부

|  |
| --- |
| ${content}  Q:${question}  A:${answer} |
| ${/content} |

**어둠이 오면 잘 보이는 것들**

[**집으로 가는 길**](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1253957)

작가 미야코시 아키코, 비룡소

아이가 태어나고, 일을 시작하면서 밤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회사는 나의 밤을 야금야금 빼앗아서 갔고, 아이는 나의 품을 한없이 찾았다. 작년만 해도 자는 시간 뺀 나머지 시간을 회사 일과 육아로 보냈던 나는 결국 지난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작은 회사로 옮겼다. 그곳은 다행히 업무량이 적은 편이었다. 덕분에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오롯이 홀로 보내는 밤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살짝 들떴다. 추위도 잊은 채 들뜬 마음으로 퇴근 버스를 기다렸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루 중 편안하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자,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꼽아보기도 하고, 어떤 책으로 어떤 글을 쓸지 생각도 하고. 소식이 뜸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도 했다. 때론 혼자 울쩍거리며 터벅터벅. 아주 느리게 걸어가기도 했다. 낮 동안 꽉 다물고 있던 입이 시원스레 열리며 혼잣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아무래도 어둠이 오면, 긴장이 풀어지고, 몸과 마음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때, 딱 읽기 좋은 책이 있다. 바로 미​야코시 아키코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적한 골목길에 아기 토끼는 엄마 토끼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간다. ​품안에서 한껏 나른해진 아기 토끼가 바라본 밤의 첫 풍경은 가게가 문을 닫는 것부터 시작한다. 마치 의식의 세계가 문을 닫는 것처럼. 아기 토끼가 오감으로 좇은 밤은 질감 있는 흑색의 그림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다. 작가는 그림 속 의인화된 동물들의 표정을 그들이 어떤 기분 상태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놓았다.

게다가 목탄을 뭉개고 문질러 표현한 까만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다. 덧칠해도 감출 수 없는 종이의 결은 미끈하고 끈적한 밤이 아니라 따뜻한 밤을 연출한다. 그렇게 표현된 밤은 장마다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연으로 다양한 결을 드러낸다. 파티하는 사람들, 불을 끄고 깊은 상념에 잠긴 사람, 욕조에 몸을 푹 담그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 책을 읽다 소파에 잠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집인지, 어디인지 목적지는 알 수 없으나 어딘가로 멀리 떠나는 사람까지. 어둠은 점점 뻗어 나가 이곳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한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변명했다간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어둠은 빛 같다. 내 이웃의 사연과 감정까지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아기 토끼가 엄마 토끼 품에 안겨 침대에 잠이 드는 과정은 우리의 탄생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엄마 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 토끼의 모습은 꼭 뱃속 아기 같다. 하는 짓도 꼭 태아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열달을 지내다가 미성숙한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